

OCT.1, 1988

삼양_ 안전한 첨단 플라스틱을 만든 날

많은 사람들에게겐 평범한 날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안전을 지킨 날입니다

당신의 삶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華嚴書院 山仰會報



河西 선생이 仁宗이 승하하신 날(7월 1일)에 마을 앞산 卵山에 가서 통곡하셨던痛哭台

筆巖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 061-394-0833
發行人: 山仰會長 吳仁均 編輯主幹: 金粹洙

하서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과 중화의 실현

吳鐘逸 교수(전주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하서(김인후, 1510~1560)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을 밝히고 그 학문이 중화를 실현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그 정통성이란 선생의 학문이 공자학으로 상징되는 원시유학과 주자학으로 집대성한 신유학 그리고 조선조의 성리학을 일관하는 것으로서 선생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 理想은 도(道)의 지극한 발현을 통하여 중화에 이르고자 하였음을 말한다.

유학의 근본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요점은 修齊治平에 있는 것이며 수제치평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理想은 도(道)가 지극하게 발현되는 중화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중화의 정신은 천명을 실현하는 데 있고 수제치평의 정신은 명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소학』과 『대학』이 그 길잡이가 된다.

하서 선생의 학문 전체를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출발은 『소학』과 『대학』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학문적 精華는 천명의 정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소학』을 指南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선생 스스로 밝힌 것이며 선생의 천명의식은 추만에게 써준 「천명도」 後題에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생의 학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천명을 실현하는 중화에 이르고자 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핀 것이다.

첫째는 선생의 학문적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조선조 성리학의 정통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선조 초기의 학문적 특징을 살피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성리학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선생의 학문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는 주자학과 원시유학의 계승성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생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선생의 학문적 가치를 논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선생은 도학을 통하여 중화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학은 천명의 실현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학문적 특징과 그 가치가 志向하는 바의 궁극적 목표가 중화의 실현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는 선생의 출처에 관한 서술이다. 선생이 조정에서 물러난 것은 어떤 정신이었으며 물러난 이후 선생은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이해는 유학의 가르침에서 볼 때 어떤 정신을 실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출처는 도학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글은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하여, 선생의 학문이 유학의 정통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 궁극적 목표는 중화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학문적 연원과 그 정통성

선생의 학문 연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 위치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선생을 어떻게 평가하여 왔고 어떻게 이해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집』의 기록에 따르면 선생의 위상과 그 학문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생은 “해동의 周濂溪이며 호남의 洙泗”라고 지적하였다.

해동의 주렴계란 선생이 조선조의 성리학을 개창하였다는 뜻이며, 호남의 수사란 선생이 호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학적 업적과 그 위치는 공자에 비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조 도학의 전승에 있어서 선생의 도통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선생은 “圃隱을 처음 唱道하였고 靜庵을 높이 천명하였으며 寒暄를 사숙하여 退溪를 德友로 삼은 것”이라 하였다.

이는 선생이 포은의 충절 정신을 계승하고 정암의 도학을 높였으며, 한훤당의 소학의 가르침을 사숙하여 퇴계의 덕과 함께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적은 선생이 조선조 도통의 정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생의 학문적 경지는 “안회의 표단(瓢簞)과 증점의 비파(琵琶)”를 이룬 것이며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太極圖)」와 장횡거(張橫渠)의 「서명(西銘)」을 겸하여 주자를 회통”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선생의 학문적 경지와 그 특징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 경지는 안회가 단표누항에 서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즐거움을 누렸던 정신과 曾點이 만물에 그 도(道)가 各得其所하는 지극함을 이루고자 하였던 경계에 도달한 것이며, 그 학문방법은 「태극도」와 「서명」을 이해하여 주자를 알고 그 도(道)에 이르고자 하였던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생은 해동의 주렴계로서 조선조 성리학의 창시자이며 호남의 洙泗로서 호남 유학의 祖宗이었고, 조선조의 도통은 포은의 정신을 唱道하고 靜庵을 闡明하였으며 寒暄의 私淑을 통하여 退溪와 德友가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의 학문 세계를 살피면, 선생을 해동의 주렴계라고 칭하여 조선조 성리학의 창시로 보는 것은, 주렴계의 「태극도」처럼 「하서천명도」가 조선조의 성리학을 개창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 지극한 도(道)의 실현에 대한 근거는 선생의 천명사상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이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의 학문적 來原을 확인하기로 하자.

선생의 사승 연원은 모재와 신재를 들 수 있지만 「천명도」와 관련하여 본다면 모재(김안국, 1478~1543)가 먼저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모재와 신재는 모두 기묘명현이지만 그러나 조선조 성리학의 발전적 특징으로 본다면 추만 「천명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사칠논변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추만의 「천명도」가 성립하기까지는 모재와 선생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추만의 「천명도」가 탄생되기까지의 그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그것은 모재와 선생 그리고 사재와 추만과의 학문적 관련성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비로소 조선 성리학의 근원과 그 발전과정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선생과 모재가 만난 것이 선생이 어린 시절부터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에 두 분과의 관계와 그리고 「천명도」의 탄생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선생은 “소학의 글을 모재 相公에게 講하자 상공은 한번 보고 소우(少友)에 대한 칭찬을 들어 격려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선생이 31세 되던 해에, 문과에 합격할 때, 모재는 대제학으로서 讀卷官이 됨으로써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 후 선생 33세 때는 스승의 부음을 듣고 加麻하고 忌祭가 되면 또한 재제하여 그 예를 깎듯이 하였다.

이를 보면 선생과 모재는 사승을 넘어선, 보다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목하는 것은, 모재와 선생의 두 분

때문이 아니라 선생과 추만과의 만남에 대한 그 원인과 배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함이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모재의 동생 사재(김정국, 1485~1541)가 고양의 망동으로 귀양을 가자, 추만이 사재 문하에 입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정지운은 사재의 제자가 된다.

추만은 이에 대하여 “正德 기묘년(1519년 중종14년) 思齋 김 선생이 조그마한 견책을 받고 고봉의 망동에 귀양 와 있었다. 망동은 실로 내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다.”고 하였다.

사재 문하에 추만이 입문한 것은, 이때부터 이미 선생과 추만은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秋巒은 명종 4년에 자신이 그린 「천명도」를 들고 순창에 우거하고 있었던 선생에게 찾아 와서 질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선생과 모재와의 관계 그리고 사재와 추만과의 관계로 볼 때, 추만은 필연적으로 선생에게 찾아 오지 않으면 안 될 학문적 연원과 그 분명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는 추만이 퇴계를 만나기 4년 전이었고 또한 사칠논변이 일어난 명종 14년보다 10년이 앞선 때였다. 그 만남에서 선생은 추만의 「천명도」에 후제를 써주고 또한 자신의 「천명도」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이른바 「하서 천명도」의 탄생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성리학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는 모재와 선생으로 이어지는 추만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계기로 「하서 천명도」가 탄생됨으로서 선생을 조선의 주류계로서 정의하게 되었으니, 선생의 학문이 조선의

성리학에 접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선생이 써준 「추만천명도」의 후제에 나타난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의 학문적 연원과 그 정통성을 살피고 그 내용이 조선조 성리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다.

선생은 스스로 말하기를 “천지의 그 중간에 두 사람이 있으니 공자가 元氣라면 주자는 眞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공자학의 정통성을 주자가 계승하였다는 믿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이 인멸한 지 오래되었는데 누가 이를 集大成하였는가. 주자가 그 도통을 이었으니 선생이 아니시면 내 뉘를 본받을까”하여 선생은 주자를 통하여 공자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선생은 또한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태극도설은 의리가 정심하고 西銘은 규모가 광대하여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선생은 공자학을 집대성한 성리학을 그 사상적 종지로 삼은 것이며 그 중에서 「태극도」와 「서명」을 좌우명으로 하여, 주자학을 학문 방법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이와 같은 사상을 추만 「천명도」의 후제에 기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秋巒天命圖 後題」에 나타난 제발을 통하여, 선생의 사상이 조선조 성리학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로 한다.

「천명도」는 천명의 문제가 그 중심이 된다. 공자의 이상은 周나라를 계승하는 것이었고 周의 제도와 문화는 天命의 정신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子貢은 공자가 周의 정신을 계승

한 사실을 지적하되

문무지도(文武之道)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었으니 현자(賢者)는 그 큰 것(大者)을 알고 불현자(不賢者)는 그 적은 것(小者)을 알아 문무(文武)의 도(道)가 아닌 것이 없었으니 부자(夫子)께서 어찌 배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어찌 상사(常師)가 있겠는가.

라고 하여 공자는 周나라의 도를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공자는 또한

문왕이 이미 돌아갔으니 道가 여기에 있지 않는다. 하늘이 장차 斯文을 喪할진대는 後死者로 하여금 이 斯文에 더불어 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하늘이 斯文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니, 罔人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하여 자신이 문왕의 도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명은 문왕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니 그것이 문왕이 於穆不已한 것은 天命을 인간의 순수한 덕으로 발현한 것이었다. 이를 「詩經」 「維天之命」 편에서는 “하늘의 命이 오호 깊고 멀어서 그치지 않으니 오호 나타내지 않은가. 문왕의 덕이 순수함이어”라고 한 것이다.

「중용」에서도 또한 天命이 於穆不已한 것은 “하늘이 소이 하늘이 된 바이며, 문왕의 덕이 나타난 것은 문왕이 소이 문왕이 된 바이니 순수함 또한 그치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선생이 추만의 「천명도」 후제에 써준 그 정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생은 위에서 열거한 이와 같은 천명의 정신을 가장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생은 “하늘의 命이 오호목목하여 그침이 없으니, 生生의 이치 간담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생의 지적은 추만이 「천명도설」에서 하늘을 理로 정의한 것과는 서로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선생은 여기에서 인간이란 천명을 실현하는 도덕적 존재로서 천명을 실현하는 당연한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 선생은 이어서 “타는 바의 기틀은 음양으로서 음양의 동정이 어울려서 그 뿌리가 되어 서로 길러지고 동시에 서로 유통한다.” “다만 形氣의 사사로움에 桎梏되어 알지 못하니, 오직 천하에 총명하고 예지롭고 지극히 성실하여 쉽이 없어 능히 그 性을 다한 者여야 이에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천도의 발현은 음양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은 마땅히 지성 무식하여 그 본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는 선생의 학문이 공자와 주자를 계승한 정통성에 있는 것이며 조선조 성리학의 개창으로서 그 정신은 천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천명은 선생의 학문적 종자로서 문왕의 정신을 계승한 공자의 가르침을 그 연원으로 하고 「태극도」의 정신과 「서명」을 우주론의 지침으로 삼아서 인간은 마땅히 천명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드러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생이 추만의 「천명도」를 보고 후제를 쓴 때가 명종 4년 기유년 8월이었으니 이 시기는 추만이 퇴계의 질정을 받기 위하여 만나기 4년 전이었고 그 후 사칠논변이 일어날 때까지는 10년

의 세월이 더 앞선 때였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통하여 우리는 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인함으로써 선생을 가리켜 해동의 周濂溪이며 호남의 洙泗라고 정의한 그 까닭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중화의 실현으로서 도학

천명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중화를 이루는데 있기 때문에, 선생의 도학이 중화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은 어떤 학문적 단계를 통하여 천명을 실현하고 중화에 이르고자 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 체계적 이해와 접근을 통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의 학문은 주자학을 그 종지로 하였으면 서도 그 귀결은 공자를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자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 이상은 중화의 실현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선생이 써준 「추만천명도 후제」와 추만이 작성한 「천명도」의 도설을 보면 선생의 정신과 조선조 성리학의 그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선생은 후제에서 “하늘의 命은 오호목목하여 그침이 없다”고 하였는데, 추만은 「천명도」의 圖說에서 “천명의 뜻을 가히 말해 줄 수 있겠는가? 天은 곧 理이다. 그 德에 元亨利貞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같은 천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견해에서 우리는 그 학문적 특징과 지향하는 바의 목표가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천명을 命으로 볼 때는, 그 命을 받은 인간은 그 명이 스스로 지닌 內在性으로서 주체적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천명을 理로 볼 때는 객관적 대상인 존재론적 탐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그 목표가 유학의 본령에 접근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리학의 탐구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선생이 써준 추만의 「천명도」 후제와 추만의 「천명도설」의 정신이 다른 것은, 선생의 理想은 천명을 실현하여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었고, 추만은 天理를 밝혀 그 객관적 이치를 탐구 하자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학문은 주자학을 종지로 삼고 있으면서도 천명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자학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자의 가르침에 이르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생은 구체적으로 「太極圖」와 「西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현의 경지에 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太極圖說」은 德性의 本領이며 「西銘」은 問學의 綱紀이니 어느 한쪽도 폐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선생의 학문 방법은 尊德性 道問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의 道에 이르는 길로서, 지극한 덕으로서 지극한 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태극도설」을 덕성의 본령이라고 한 것은 「추만천명도」 후면에 題한 바와 같이 “천명은 음양을 타고 나타난 것(所乘之機 陰與陽)”이니 그와 같은 「태극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천명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서명」을 問學의 강기로 여긴 것은 「서명」이 천지와 인간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事天學으로서 선생은 이를 통하여 천명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보면 선생의 학문이 이와 같이 주자를 통하여 공자에 이르고자 하였던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는 선생이 “천지의 중간에 두 사람이 있으니 공자가 元氣라면 주자는 眞이다”고 하여 주자의 참다운 정신을 통하여 공자의 원기를 구현하고자 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생은 天文 地理 醫藥 卜筮 算數 律歷 등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지만 근간은 『소학』과 『대학』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소학』의 글은 본래, 성현의 가르침을 삼는 뜻으로서 무릇 立心 行己 處事 接物의 준칙을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실로 繼往聖 開來學의 要典이며, 正學의 총계였다.

고 하였다. 선생은 이를 규범으로 삼아서 “어버이에게 효도함이 지극하였고, 임금에게 충성함이 극진하였고, 규문에 처함이 화하였으며, 同氣 간을 그리워함이 돈독하였으며 사우를 존대함이 진실하였고, 검약하게 몸을 행하고 공손으로 사람을 대하였다.”

이와 같은 『소학』을 실천한 연후에 “『대학』을 읽고서야 마침내 『대학』이 『소학』과 더불어 終始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初學으로서 德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를 놓아두고는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대

학』을 통하여 至善의 中和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다.

선생의 학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생은 經傳史集을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근처에 이르러 물 썰 틈이 없었으니, 집안에서는 儀章과 度數가 털끝만큼도 법도를 넘지 않았고 筵席의 강론은 道의 大體가 넘실넘실 만물을 발육하여 하늘에 그 높고 큰 것을 다 하였고, 그 用을 논함에 있어서는 안이 없는데 이르러 그 費와 隱을 겸하고 세와미를 겸하여 빠트림이 없는 연후에 왕도를 갖추게 된 것으로 여겼다.

고 하였다. 이는 선생이 안에서는 수신제가로부터 밖으로는 천지 만물과 더불어 道가 발현되는 지극한 경지에 이르고자 함을 말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그와 같은 道의 用으로부터, 그 道의 大體는 費와 隱을 겸하여 發育萬物의 중화의 세계에 이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가와 치국의 일관, 경학과 경세의 일치, 도와 만물의 발현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 그 다스림은 “費와 隱을 겸하여 道가 洋洋乎 發育萬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道가 지극히 발현되어 만물을 발육하는 중화의 경지야말로 선생이 희망하였던 증점의 浴沂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선생이 쓴 「욕기」의 시를 보면.

어른 아이 봄옷을 입고
함께 가서 기수에 몸을 씻네.

흐르는 물은 가득한데
봄날은 마야흐로 道에 의지 하였도다.
지난 때 물은 욕심을 떨쳐 버리니
만물도 빛남이 살아난다.
무우의 맑은 바람 가득안고
노래 하며 유유히 돌아온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지가 천지만물과 함께 도가 지극하게 발현되는 중화의 세계인 것이다. 선생은 이러한 詩뿐 아니라 몸소 이를 행하였다.

한가한 시간에 날씨가 따뜻하면 곧 5~6명의 어른과 학동들을 데리고 대숲 곁에 있는 연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고 돌아왔는데, 따르는 이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데는 또한 때때로 몸으로 체득하여야 하는 것이니 기수에서 목욕하고 뜰의 풀과도 한 생명으로 어울렸던 뜻을 體認하여야 비야흐로 학문을 진보할 수 있다.’

고 하여 몸소 행하여 가르쳤으니 이는 실로 선생이 욕기의 경지에 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선생의 학문과 실천 그리고 수양과 그 성취는 선생의 도학이 중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생의 학문이 중화로서 발현된 도학의 세계였다.

4. 불리경(不離經)의 정신과 출처(出處)

발표자는 이제 선생이 처하였던 그 시대 상황에서 선생은 어떤 신념과 소신으로 그 시대를

구세하고자 한 것이며 왜 조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출처 의식은 어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로 한다.

선생은 조정에서는 진심을 다하였고, 조정을 떠나서는 조야를 가리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심을 다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왜 조정에 머물지 않고 산간에 은거하여야 하였던 것일까? 여기에는 선생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진실한 출처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하여 선생의 道의 계승 의식과 출처, 그 행의와 실천에 나타난 신념, 조정에서 물러난 이후 선생이 보여준 道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선생은 도학자로서 조정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고 선비들의 기풍을 세우며 이를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는 국가의 원동력은 道를 실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그 책무는 선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먼저 군주의 道가 밝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중종에게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이라는 『논어』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군주가 지닌 본연의 권도로서 품절하여 규구준승을 지켜나가면 백성들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결같이善으로 옮겨가리라”고 하였다.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道의 근원이 군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야 백성들이 저절로 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군주의 도가 밝아지려면 어진 신하를 보살피야 하는 것이며 어진 신하는 학문을 올바르게 익

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먼저 사습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생은

예부터 잘 다스리는 군주는 누구나 어진 人才들과 친하였고 사습을 바로 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어진 인재와 친하여진 연후에 오로지 보익함을 맡길 수 있어서 백성을 교화할 수 있으니, 그 교화의 시행은 반드시 사습을 바로 잡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습이 올바르게 된 연후라야 彝倫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주창하였다.

이와 같이 선비의 기상을 중시한 선생으로서 는 기묘 사람들의 이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선생은 이러한 정신에서 箴子를 올려

지난날 기묘사회에 있어서는 조야에서 모두가 원통함을 민망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껏 본심을 그대로 개진하여 그들의 죄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서 위로는 임금의 의심을 풀어 주고 아래로는 구천의 제신들의 울분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

고 하여 기묘사람의 신원을 촉구하였다. 이는 선생의 道學 至治가 기묘사람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선생은 이와 같이 기묘사람들이 堯舜의 至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정신을 잇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조정 대신들의 생각과는 불합할 수밖에 없었고, 중종은 물론 다른 대신들과도 그 뜻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선생은 道를 실현하려는 의지마저 좌절당하였으니 이것이 선생으로 하여금 조정에 머물게 할 수 없었던 첫째의 이유였다.

선생은 그러나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세자였던 인종을 보익하여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훗날을 기약하고자 하였다. 이는 새로운 군주로 하여금 道治를 열도록 한 것이다. 이때 인종과의 만남은 현군과 현신의 만남이었다.

인종은 선생의 도덕과 학문의 이름다움을 잘 알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禮를 극진하게 하여 빈번하게 召對를 이루었다. 선생 또한 이에 인종의 덕이 탁월하여 천고에 뛰어난 것을 해아려 반드시 堯舜의 정치를 이루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서로의 만남이 날로 밝고 융숭하였다.

인종은 이와 같이 성군의 자질을 지녔고 선생 또한 어진 군주를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때 “인종은 이미 덕이 성취되고 소문이 일게 되어 신민들은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여 세상에서 선생에게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事勢는 선생에게 그와 같은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문정왕후의 세력들은 날로 펴박을 거듭하여 선생을 괴롭히고 선량한 선비들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어졌던 을사년의 사회를 보면 이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조정에서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선생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였다.

맹자는 공자를 가리켜서 “가히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가히 머물러 있을 만하면 머물러 있고, 가히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으며 가히 빨리 떠나야 하면 빨리 떠났던 것은 공자였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소원하는 바는 공자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맹자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가히 떠나야 할 때라면 빨리 떠나는 것이 시의에 맞는 것이며 그것이 道를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선생은 스스로의 도를 펼 수 없었고 동궁을 보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였으나 그와 같은 소망조차도 펼 수 없었으며, 스스로의 목숨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선생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공자의 가르침 그대로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라면 빨리 떠나는 것이 道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생의 출처관이 그 당시에 선생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도이며 이는 또한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생의 출처는 그 학문과 도학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는 오로지 한결같은 외로운 患과 곧은 절개로써 그 올바름을 실현한 것이었다. 이는 至正한 大中の 실현으로서 規矩의 법칙에서 그 처신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선생은 이와 같이 올바름을 지키기 위하여 조정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입지와 처신은 조정에서나 산림으로서나 한결 같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선생은 야인으로서도 그 道를 잇고 충절을 지키고 학문에 전념하였던 것을 보면 선생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經의 정신을 떠나지 않는 不離經의 出處觀을 보여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생은 고향에 은거한 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충직한 신하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비통한 마음으로 역사에서 조정의 모함을 받고 물러난 옛날의 충신들을 그리워하고 자신이 돌

보지 못하여 비명에 간 인종을 슬퍼하는 마음을 글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을사년에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생명이 끊어질 듯 살고 싶지 않아하였으며, 매년 인종의 기제 때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통곡하고 돌아왔다.

이 때 선생은 인종을 섬기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인종을 그리워하는 글을 썼으니 그것이 「有所思」였다. 선생은 이 시에서 몸은 비록 은거하고 있지만 군주를 섬기지 못하였던 선생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산간에 묻혀 사니 봄가을 얼마런가 / 오늘도 오히려 죽지 못하였소.” 라는 자신에 대한 회한과 슬픔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선생은 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문정왕후가 인종을 핍박한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중종이 문정왕후의 핍에 넘어가서 세자를 죽게 한 것으로서 이를 晉獻公이 여희의 핍에 빠져 태자 申生을 죽인 사실에 비유하여 신생을 조상하는 글 「弔申生辭」를 썼다.

선생의 출처는 이와 같이 조정에서나 물러서나 변함없이 그 추구하였던 바는 道였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하로서 충절과 절의를 지키고자하는 변함없는 출처관을 보여준 것임을 알 수 있다.

5. 結論

하서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과 중화를 실현하

고자 하였던 정신을 논하는 글은 이제 여기에서 그친다.

이 글의 중요한 관점은 1장에서는 선생은, 공자의 가르침이 주자에 이르고 주자의 학문을 이어서 조선조 성리학을 개창함으로써 해동의 주류계, 호남의 수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 특징은 주자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공자의 가르침을 회복하여 천명을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것이 선생의 천명사상이었다. 선생은 이와 같은 천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학문과 그 이상을 여기에 둔 것이다.

2장에서는 선생은 『소학』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고, 경사자집으로부터 만물이 발육하는 도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과 정신은 시종이 여일한 것으로서 그 종지는 중화를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도의 지극한 실현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선생 스스로 이론 중화의 세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선생의 의지는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 같은 것으로서 선생의 출처 또한 도(道)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이 조정에서나 초야에서나 그 믿음을 변치 않았고 그 출처는 경(經)을 떠나지 않았으니 이러한 정신이 선생의 일관된 참다움이었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선생은 유학 정통성의 계승으로부터 중화를 실현하기까지, 처사와 접물 지신 행기의 『소학』으로부터 수제치평의 『대학』에 이르기까지 경사자집의 경학에서 지치에 이르기까지 천명의 발현으로부터 중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일관되어 지극한 도를 실현한 것임을 밝힌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편의상 원 논문의 주를 생략하였음)

河西가 仁宗을 그리워한 詩

河西集에는 仁宗을 그리워하거나, 비탄에 젖거나 당대 현실을 비유적으로 비판한 詩文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을 만큼 많다. 다른 시들에서도 仁宗을 그리워한 구절이 언뜻언뜻 보이기도 한다. 〈有所思〉, 〈以想思一夜梅花發〉, 吊 申生 辭 吊 比干 辭 가 널리 알려진 詩文이다. 그 외에 여기에 몇 편의 시를 뽑아서 싣는다. (편집자)

두자미(杜子美)가 취하자 종문(宗文)이 고삐 잡은 그림 (杜子美醉後宗文捉鬚圖)

천상의 백의(白衣) 구름 바람 불어 흩날리고
먼 산은 아득아득 저문 빛 검프르네.
평원이라 십리에 푸른 풀 우거지고
지는 해 지질 않아 하늘은 아스랑다.
그대 홀로 나귀 타고 어디로 가는 건가
안화(眼花)로 비틀배틀 우물에 떨어졌네.
건곤이라 구주(九州)에 나라는 몇 만이고
하루 저녁 모두 쓸려 취향(醉鄉)으로 돌아간 듯.
완화계(浣花溪) 시냇머리 유벽한 그곳에는
두어 칸의 초당이 의연히 열렸구려.
한평생 세상과는 취미 서로 성글으니
때때로 술 만나면 천잔을 기울여라.
흥그리며 머릴 들어 푸른 하늘 쳐다 보니
저 한 점의 태산이 가는 터럭 가물가물.

신선의 나그네라 사람들은 견주는데
인간에 유락(流落)되어 몇 해를 지냈고,
반쯤 쓸린 저 두건(頭巾)을 뉘라서 바로 잡노
한 아들 부축하며 한손으로 고삐 잡네.
입만 한 번 달짝하면 옥구슬이 쏟아지니
무더기를 쌓아 쌓아 산같이 높아졌네.
눈 앞의 귀신들은 흥 잡힐까 두려워서
그옥한 곳 멀리 찾아 모두 다 숨는구만.
산 앞의 풀길 다리 시내 기대 누웠는데
푸른 벼랑 둥글둥글 높고 낮은 소나무들.
저물녘 늙은 아내 형문(衡門)에 기대 섰다
나귀 등을 막 내리니 반갑게 부축하네.
고개를 돌려 보니 백년 근심 풀릴세라
두견새 한 소리는 잠든 나를 놀래누나.
깊은 밤 밝은 달에 일어나 절 올리며
미인 멀리 바라보니 저 하늘 한곳일래.
병든 학 슬피 울면 만리를 시름하고
마구에 얹던 늙은 말 부질없이 설레기만.
백화담(百花潭) 못 머리라 만리교(萬里橋)
다리 가에
홀로 해를 마치며 한없이 방황하네.
세상에선 공연스레 시호(詩豪)로만 알 뿐이지
어느 뉘가 혁혁한 충심을 인정하리.
시와 술에 정 붙인 건 다만지 허튼 수작
먼 뜻은 저 구름과 아득히 어울려라.
여보소 나를 위해 좋은 비단 가져다가

태양에 기울어진 해바라기 그려주게
백년이라 외론 신하 초야에 늙었지만
밥 먹을 때마저도 생각 잊기 어렵다오.
천문(天門)은 멀고 멀어 외쳐도 못 들으니
곡강(曲江)이라 봄바람에 눈물이 끊임없어.
어찌 그 자잘구레 바깥일을 그렸으리
속사(俗士)들은 애오라지 여광(餘光)을
탐내는 걸.

고당(高堂)의 벽에 걸고 손수 늘 만지어라
반창(半窓)의 꽃 그림자 봄날이 기나 기네.

風吹天上白衣雲, 遠山依微暮靄蒼.
平原十里草萋萋, 落日未落天蒼茫.
君獨騎驢向何處, 眼花落井生微狂.
乾坤九州幾萬國, 一夕轉盡歸醉鄉.
浣花溪頭幽絕處, 依然數間開草堂.
生平與世味相疎, 時時得酒傾千觴.
微吟舉首向青天, 太山一點秋毫芒.
人人擬看紫霞客, 流落人間經幾霜.
接羅半倒誰整之, 一子扶傾一執轡.
紛紛珠玉咳唾餘, 堆積不盡如山岡.
眼中神鬼怕嘲咏, 尋幽走遠皆潛藏.
山前斷橋臥溪曲, 團團翠壁松低昂.
衡門老妻倚日暮, 前堵下驢欣扶將.
回頭未解百年憂, 一聲蜀魄驚夢床.
夜深月白起再拜, 遙望美人天一方.
病鶴悲鳴愁萬里, 伏櫪老驥空騰驤.
百花潭頭萬里橋, 終年天地長徊徨.
世上空知詩興豪, 誰看赫赫忠肝腸.
寓情詩酒只餘迹, 遠志渺與雲相羊.
請君將我好東絹, 特寫葵心傾太陽.
孤臣百世老蓬華, 耿耿一飯思難忘.
天閭遞叫不聞, 曲江春風風淋浪.
豈容區區摸外事, 但令俗士耽餘光.

高堂掛壁手摩挲, 半窓花影春晝長.

기재(企齋) 상공(相公)의 효릉(孝陵) 만사운에 화작하다 (和企齋相公, 孝陵挽韻)

건건(乾乾)하여 정성이 쉬지 않으니
날로날로 성덕이 새로워갔네.
대월(對越)로써 천명을 고정시키고
상할 듯이 백성을 아끼셨다오.
마음 전해 예(睿)로써 성(聖)을 만들고
몸소 숭선하여 효는 인(仁)이 되었네.
낙리(樂利)는 저 문왕을 생각거니와
의형(儀刑)함은 신신(薰臣)에 달려있도다.
乾乾誠不息, 日日德惟新.
對越凝天命, 如傷子庶民.
心傳睿作聖, 躬率孝爲仁.
樂利思文考, 儀刑在薰臣.

효릉(孝陵)이 동궁(東宮)에 계실 적에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을 당하여 어제의 율시(律詩)가 있었으므로 삼가 절을 하고 화작하다 (孝陵在東宮時, 於大殿誕日, 有御製律詩, 謹拜和之)

선대왕 위에 계신 사십 년 사이
곡립(鵠立)하여 모신 적 두세 해로세.
봄빛은 은잔 속에 넘실거렸고
연화(煙華)는 옥전(玉殿) 앞에 찬란했도다.
황황(煌煌)하신 어좌(御座)를 우러러 뵈고
목목(穆穆)하신 경연(經筵)을 모시었어라.
궁검(弓劔)을 따를 길이 다시 없으니

이젠 머리에 눈이 가득하도.

龍飛四十載, 鵠立兩三年.

春色銀觴裏, 烟華玉殿前.

煌煌瞻御座, 穆穆侍經筵.

無復隨弓劍, 如今雪滿顛.

소회를 읊어 경범(景范)에게 답하다 (詠懷答景范)

우리나라 다행히도 주문왕(周文王)을 만났으니
만고(萬古)의 기봉(箕封)에 또 한 분의 임이로세.
신민들은 그 은택(恩澤)을 끝내 입지 못했으니
구름 타고 가신 곳이 저 하늘 어디덴고.

吾東猶幸遇周文, 萬古箕封又一君.

臣庶未終蒙至澤, 九天何處帝鄉雲.

(其二)

하늘이 어찌 쉽게 사문(斯文)을 없애리요
들으니 현재 임금 또한 성군(聖君)이라 하네.
스스로 행이로세 태평 세상 판 일 없어
옥천(玉川)이라 산 아래 경운(卿雲)을 바라보네.
天何容易喪斯文, 聞說當朝亦聖君.
自幸太平無一事, 玉川山下望卿雲.

우연히 짓다(偶成)

저 남산 올라가서 고사릴 캐노라니
미인은 어디메노 내 마음 슬프구려.
때 가고 물(物)도 변해 만날 기약 영 없으니
금잔에 술 마시며 오래 생각은 앓으리라.
陟彼南山采薺薇, 美人何處我心悲.
時移物變無期見, 姑酌金壺不永思.

〈筆巖書院〉

〈筆〉字에 대한 所見

요즈음 여러분으로부터 필암서원의 『필』자를 『筆』자로 쓰지 않고 『艸』 밑에 『聿』자를 쓰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아는 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조 현종 때에 필암서원이라는 액호를 처음으로 사액을 받았는데 그때 尹鳳九 선생이 글씨를 쓴 사액 현판에 이렇게 써서 내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관습적으로 이 글자를 써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봉구 선생이 사액 현판을 쓰면서 글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니고 한자는 한 글자를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 『竹』 밑에 쓰지 않고 『艸』 頭 밑에 쓰게 된 것이다.

『竹』 과 『艸』 는 같은 6획으로 흔히 混用한 例가 많이 있으니 宋同春堂 선생이 쓰신 청절당의 현판도 『절』 자를 대 『竹』 밑에 쓰지 않고 『艸』 頭 밑에 쓰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두터울 『篤』자를 대죽 밑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行書 등 모필로 쓰는 경우 초두 밑에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란 옛날부터 한가지 글자가 정해져서 그대로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가지로 그 형태나 획수가 변천하면서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한글자를 두고 여러가지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의 先人들이 慣習적으로 써오던 傳統을 그대로 지켜 현재도 『필』 자를 초두 밑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正公 都有司 金鉉維>

正祖 傳敎 誤字에 대한 考察

文正公 都有司 金 鎮 雄

一. 序言

丙辰(1796)년 河西 선생의 文廟 配享이 允許 될 무렵 正祖는 하서 後孫 중 學德이 높은 前 參奉 麥湖公(諱 壽祖)을 六品職에 除授하라는 傳敎를 내렸다.

그런데 이때 내린 전교의 내용이 河西全集 續篇 附錄(丙辰1916)에 실린 것과 朝鮮王朝實錄 중 正宗大王實錄, 弘齋全書 및 承政院 日記등에 실린 것이 서로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그동안 별다른 문제提起없이看過해 왔다. 지난 20년 전 하서전집 國譯本이 출간될 무렵부터 이 문제가 惹起되었으나 왜 이런 差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이 是非만 亂舞한 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다.

필자는 어찌하여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學問의 次元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二. 傳敎의 紹介

1. 하서전집 續篇 附錄의 내용

丙辰(1916)년 芝山公(諱 暉中)께서 발행한 金屬活字本인 河西先生 全集 續篇과 그 후 戊寅年(1940) 湖巖公(諱 佶中, 譜名 義中)이 발행한 木版本인 하서선생 전집 속편 附錄에 登載된 前記

傳敎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予於先正文靖 竊以爲「上以窺程子朱子倡明之緒 下以繼文純文成開來之學」景仰之私曠百采切--』

2. 朝鮮王朝實錄의 內容

조선왕조실록 중 정종대왕실록 卷之四十四 七十章에 등재된 교서의 내용과 승정원 일기의 正祖 丙辰 六月 望後條에 등재된 교서의 내용 및 弘齋全書 卷三十五 七枚의 교서의 내용은 모두 한결같이 다음과 같다.

『予於先正文靖 竊以爲「上窺程子朱子倡明之緒 下啓文純文成開來之功」景仰之私曠百采切--』

3. 두 敎書의 차이점

문집에 등재된 교서의 내용과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교서의 내용이 각각 몇 字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문집의 교서 가운데 「上以」의 「以」자와 「下以」의 「以」자를 모두 없앤 것과 「下以繼」의 「繼」자를 「啓」자로 바꾸고 「開來之學」을 「開發之功」으로 바꾼 것이 왕조실록이나 홍재전서 그리고 승정원 일기의 교서와 다른 점이다.

三. 差異의 考察

1. 하서전집 續篇 편집 經緯

병진(1916)년 芝山公이 하서선생문집 속편을 간행하려고 資料를 수집하여 편집할 때에 당시의 實務를 맡았던 분은 靜窩公(諱 仁中)과 敬菴公(諱 魯洙) 두 분이다.

특히 敬菴공은 당시 芝山공의 執事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실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그는 지산공의 명에 의하여 「朝鮮史」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며 국립도서관에서 왕조실록 등 각종 사료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경암공이 편집한 문집속편에 실려 있는 朝鮮王朝實錄抄를 보면 英祖 辛酉(1741)년의 기록까지만 수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정조실록은 전혀 수록되지 않았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에 정조실록이 도서관에 미처 비치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찾지 못하였던 간에 아무튼 경암공은 정조실록의 이 전교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문집 續篇을 편집하였음이 확실시된다.

당시에 실록을 도서관에 전시할 때 실록 전체를 한 번에 모두 영인하여 동시에 전시한 것이 아니고 방대한 분량이어서 영인되는 순서대로 전시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조실록이 미처 영인되지 못하여 전시되지 않은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문집 속편에는 홍재전서 抄錄도 편집되어 등재되어 있으나 이 교서의 내용은 이 초록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 또한 문집 편집시 홍재전서의 전교 부분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 일기 역시 문집 속집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암공이 이것도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문집 교서의 出處

그렇다면 경암공은 과연 어디에서 하서 선생 문집 속편에 실린 교서 내용을 얻게 되었을까?

이것은 필경 麥湖公에게 나라에서 내려 보낸 敎旨를 직접 보고 작성하였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교지 내용을 옮겨 筆寫해 놓은 門中の 누군가로부터 入手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당시 이 교지는 본인 한 사람만의 光榮이 아니라 문중 전체의 경사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중의 某某한 분들은 모두들 이 교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암공이 문집속편을 편집할 때에는 왕조실록이나 홍재전서 또는 승정원 일기 등 국가의 기록물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고 맥호공에게 직접 내려 보낸 교지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고 이를 근거로 편집한 것이 確實視된다.

그러나 불행이도 맥호공에게 내려 보낸 그 당시의 敎旨는 현재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행방을 찾을 길이 없다. 맥호공은 아들이 없어 그의 堂姪되는 邦胄공을 養子하였고 또 그의 증손자도 無后하여 入養하였으니 그 간에 맥호공의 유품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고 현재 그의 자손에게는 이 교지를 비롯한 모든 遺品이나 遺文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문집속편 부록의 편집

앞서 언급한 대로 병진(1916)년 지산공에 의해 발행된 속편을 발간할 때에는 이 교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疑問을 하지 못한 채 看過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24년 뒤인 무인(1940)년에 壺巖公에 의해 木版本으로 발행할 때에도 역시 경암공이 편집을 전담했었는

데 이때 비로소 이 교서 내용에 대하여 疑心을 품게 되었다.

「下以繼文純文成開來之學」 즉 文純公 李退溪와 文成公 李栗谷의 開來之學을 이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문순 문성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서 선생이 혹시 文忠公 鄭圃隱이나 文敬公 金寒暄堂의 뒤를 이었다면 말이 되지만 이퇴계와 이율곡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문순 문성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전교 본문 「文純文成」 아래에 細字로 「文純文成疑誤」(문순 문성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됨)이라고 註를 달아 놓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註를 달았다는 사실은 이 교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나 아무리 교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임금의 교서를 함부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本文은 손대지 않고 註만 달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암공이 당시에 보고 편집한 교지에는 분명히 이율 繼자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四. 교서 訂定의 經緯

1. 문집 등재 교지 내용 解釋

그렇다면 처음 작성된 교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보기로 하겠다.

「내가 선정 문정공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위로는 程子和 朱子가 처음으로 학문을 앞장 서 밝힌 실마리를 엿보아 알았으며 아래로는 문순공 이퇴계 문성공 이율곡의 開來의 學問을 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러러 景慕

하는 마음이 백배나 간절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풀이해 보면 「하서께서 위로는 공자의 학문이 중간에 거의 끊어져 있던 것을 程子和 朱子가 이 세상에 나와 그 학문을 다시 앞장서서 倡導하여 밝혔기 때문에 다시 유교가 이 세상에 復興한 사실을 하서께서 처음으로 看破하여 알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아래로는 이퇴계와 이율곡의 계왕개래(繼往開來)한 학문을 이었기 때문에 景仰하는 마음이 百倍나 더욱 간절하다」하는 뜻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上」자와 「下」자 다음의 「以」자는 일종의 어조사로서 별 의미가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며 문제는 「下繼文純文成開來之學」의 해석이다.

주자가 쓴 論語의 序文에 「繼往聖 開來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위로는 돌아가신 聖賢을 이어받아 아래로는 미래에 태어날 後進들의 學問을 열어 준다」는 뜻이며 현재도 학자들이 글을 지을 때 흔히 많이 引用하는 文句이며 「繼往 開來」라고도 많이 쓰고 있다.

정조께서 교서 내용을 口述하면서 이 문구를 聯想하여 앞에 「繼」자를 쓰고 뒤에 「開來學」을 인용하지 않았나 추정되는 데 앞 구절 「上窺程子朱子倡明之緒」와 「下繼文純文成開來之學」은 對偶가 되는 글이기 때문에 두 句를 對를 맞추어 해석한다면 「아래로 문순 문성이 繼往 開來한 학문을 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上窺」 즉 「위로 엿본다」와 「下繼」 즉 「아래로 잇다」의 主語는 모두 先正 文靖(하서 선생을 지칭)이며 따라서 「窺」와 「繼」는 모두 動詞이고 「緒」와 「學」은 각각 目的語가 된

다. 따라서 「文靖이 위로는 --의 실마리를 엿 보았다」로 해석되고 또 「文靖이 아래로는 --의 學을 이었다」라 해석해야 하는데 앞 句는 말이 되지만 뒷 句는 「河西 先生이 文純 文成의 開來之 學을 이었다」고 하는 妄發이 되고 마는 것이다.

2 실록 등재 교서의 解釋

정조가 승하하시고 實錄廳이 신설되어 실록을 편찬할 적에 이 교서를 實錄廳에서 仔細히 읽어 보니 앞서 설명한 대로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이 교서를 「下啓文純文成開發之功」으로 修訂하였는데 「開來之學」을 「開來之功」으로 고치고 이를 「繼」자는 열 「啓」자로 고침으로써 「아래로 文純 文成이 學問을 널리 펼친 功을 열었다」고 文章을 뜯어 고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河西가 아래로 李退溪 李栗谷이 학문을 널리 펼치는 功績을 세우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해석이 되고 따라서 文脈上 무리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3. 實錄의 編纂 過程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王命을 敎라고 하는데 이 교를 임금이 口述하면 이것을 받아 적어 기록한 문서가 敎書이고 이 교서를 종이에 써서 해당자에게 보내는 문서가 敎旨이다.

이 교서 작성은 물론 王命의 出納을 담당하는 近臣(主로 弘文館 관리와 承政院 承旨 등)이 하고 또 春秋館의 記事官(史官)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왕명을 받아 知製敎가 敎書를 작성하면 裁可를 받아 이것을 敎旨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시행에 옮기고 史官은 기록한 史草를 보관해 두었다가 임금이 승하하면 그 다음 代에 가서 實錄廳을 신설하여 元老 大臣들을 爲始한 文章

家들을 중심으로 編修官을 선정하고 이 史草를 실록편찬의 史料로 삼아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史官이 기록한 史草는 御前에서 草書로 速筆로 받아 쓰기 때문에 誤字나 脫字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도 添削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修訂을 가하여 실록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장의 표현이 잘못 되었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임금이 口述한 문장이라도 당연히 고쳐서 편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후에 實錄廳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앞서 설명한 대로 문장이 명쾌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御意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기에 이에 修正을 가한 것이다.

대체로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大學者가 別世하면 그 門下生들이 遺稿를 수습하여 문집을 편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큰 학자의 글이라 할지라도 편집자들이 詩文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原文이 표현상 매끄럽지 못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添削을 가하여 潤文하는 것이 通例인 것이다.

예를 들면 河西集을 두 번째 간행하던 숙종조 丙寅(1686)년의 경우에도 詩文의 遺稿를 서울로 보내어 尤庵 文谷 玄石 등 당대의 大賢들이 돌려 보면서 校訂을 보았다는 기록들이 있으며 또 尤庵 선생의 경우에도 처음 유고를 筆寫할 때 많은 수정이 있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實錄廳의 修正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록청에서 史官이 기록

한 史草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文草上 不合理的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정된 내용은 實錄에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弘齋全書와 承政院 日記에도 모두 이 실록의 내용과 똑같이 수정되어 같은 내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五. 結言

이상으로 똑같은 一件의 교서가 어찌하여 각기 다른 두 가지 문장이 생겼을까 하는 점을 考察해 보았거니와 敬菴公이 처음 문집 속편을 편집할 때 보았던 敎書의 내용은 분명히 麥湖公에게 직접 내려 보낸 당시 敎旨의 내용일 것이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그리고 홍재전서에 실린 교서는 정조가 승하하신 후 실록청에서 수정을 가한 교서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암공이 문집속편 부록을 편집하면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여 註釋을 달아 놓게 되었고 그렇다고 교지 내용을 임의대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原文 그대로 문집에 등재하였던 것이다.

경암공이 서울에 올라가 도서관에서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열람하던 그 때만 하더라도 일제 초기이며 이제 막 도서관이 생긴 직후인지라 일반인들은 도서 열람 방법도 잘 몰랐을 것이며 또 진열된 도서도 완벽히 구비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암공이 이 교서의 내용을 열람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되며 더구나 해서 선생의 문묘배향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 정조실록을 열람하였다면 이것을 抄錄하여 문집에 등재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이 초록

이 문집에 없는 것을 보면 그 때 이 교서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상 문집의 교서 내용이 실록의 교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 보았거니와 교지를 작성하여 시행한 후 정조가 승하하시고 실록은 그보다 훨씬 후에 수정된 것이며 또 교지의 내용을 바르게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후손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 교서를 실록의 교서대로 모든 文籍을 修正해서 記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 이 문제가 문중에서 시비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선비

김기현(전북대학교수) 지음



전북대 윤리교육과 김기현 교수가 시대를 초월해 창조적인 지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비정신의 모든 것을 담은 연구서 **선비 - 사유와 삶의 지평**을 펴냈다. 저자는 진리와 도의에 따라 자아를 확립하고 완상하려 했던 사람이 진정한 선비라며 퇴계 이황을 그 표상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진지한 사색과 자아를 완상하려는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선비 정신의 근본이 되는 우주적 자연관과 거기서 배태된 인간학 사회학 그리고 죽음과 삶에 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선비의 본모습을 살려낸다.

〈인문사 간행 | 2만5천원〉

河西 思想 국제학술발표회 성료

필암서원 주최, 장성군청 후원

순창 훈몽재 등河西 유적지 답사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학자인河西 김인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발표회가 지난 11월 6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청, 필암서원,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후원한 이날 발표에는 이청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유림과 장성군민 등 350명이 참석하였다.

박래호 필암서원 집강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진웅 도유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필암서원 류승국 원장의 대회사, 이청 장성군수와 이낙연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성균관대 정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발표에서는 류승국 원장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라는 기조 강연을 했고, 전주대 오종일 교수의 〈하서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과 中和의 실현〉, 中國 安徽大 解光宇교수의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사상 강론〉, 日本 筑波大 佐藤貢悅 교수의 〈正人의 道; 하서 선생의 생애와 학문 관견〉,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義理 사상〉, 한국전통문화학교 최영성 교수의 〈하서 김인후의 경세관과 출처 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성균관대 최일범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군청대회의실에서 각테일 파티가 있는 다음 한·중·일 교수단 일행은 백양사 관광호텔로

이동하여 이청 장성군수와 군청 및 의회 관계자, 필암서원 임원, 문중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만찬을 들었다.

교수단 일행과 필암서원 임원들은 다음날 11월 7일 백양사를 관광하고 필암서원에 도착하여 우동사를 봉심하고 유물전시관과 교육관을 관람한 후 맥동 하서 선생의 생가로 이동하여 백화정, 원당신도비, 난산 통곡대를 답사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담양의 소쇄원, 식영정, 가사문학관을 답사하고 순창의 훈몽재와 낙덕정을 관람하는 등河西 선생의 유적을 대부분 답사하였다.

河西 先生은 中和로써

天命을 실현코자했던 道學者였다

11월 6일 長城郡廳 아카데미 홀에서

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 발표회

河西 金麟厚 선생 탄신 500주년을 앞두고 선생의 道學思想을 재조명하는 한·중·일 국제학술발표회가 지난 11월 6일 오후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렸다.

〈河西 선생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柳承國 필암서원 원장은 “하서 선생 학문의 근간은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한 道學과 中和 사상”이라며,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대사회는 선생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도덕성과 인간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河西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과 中和의 실현〉이라는 논제로 발표에 나선 오종일 全州大 교수는河西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을 밝히고, 그

학문이 中和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며, 학문적 정통성이란 선생의 학문이 孔子學으로 상징되는 原始儒學과 朱子學으로 집대성한 新儒學, 그리고 조선조 性理學을 일관하는 것으로, 선생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道の 지극한 발현을 통하여 中和에 이르고자 한 것이 선생의 理想”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天命을 실현하려는 선생의 학문적 전통성을 확인함으로써 正祖가 선생을 가르켜 海東의 周濂溪요 호남의 洙泗라고 말한 까닭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생의 학문은 朱子學을 그 宗旨로 하였으면 서도 그 귀결은 孔子를 배우고자 하였기에, 性理學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자의 정신을 실현코자 하였던 것이고, 그 思想은 中和의 실현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선생이 평생토록 추구한 사상은 道の 지극한 발현을 통하여 中和에 이르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解光宇 中國 安徽大 교수는 “선생의 사상은 北宋 주돈이의 우주본체론에 근간을 두고 이를 발전시켰으며, 詩賦를 빌어 哲理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사토고에스(佐藤貢悅) 일본 쓰쿠바대 교수는 “선생의 저서를 보면 높은 학문과 고귀한 품격, 용기와 기개, 충성심 등 비견할 수 없는 역사적 위인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河西가 제기한 正人이라는 표현은 소박한 것처럼 보여도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기동 성균관대 교수는 <河西의 義理思想>에서, 河西 선생의 출처와 의리, 의리를 통한 크나큰 실천에 대해 논하였다.

현대인들이 물질적 경쟁에 몰두하느라 마음이 각박해져 자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흠결없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실천했던 河西 선생은 이 세상의 큰 햇불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河西 선생은 一貫賦에서 “두루두루 응하여 모두 족하니 / 모든 것이 어울려서 낙원이 되네 / 천하가 제 아무리 넓다 하지만 / 모두가 내 한 몸에 달려 있으니”라고 노래하여 天下의 모든 것이 어울려서 낙원이 되는 것은 오직 내 한몸에 달려 있음을 말한 분이라고 말했다.

<河西 김인후의 경세관과 출처 대의>를 발표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최영성 교수는 “河西처럼 출처 대의에 흠결이 없다고 칭송받는 학자는 드물다.”고 말했다.

“河西의 은거는 현실에 대한 우려, 불만과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河西가 지치주의 도학정치를 다시 내걸고 이것의 부활을 기도한 것 자체가 매우 개혁적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河西의 출처관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논문인 <佯狂爲奴論>에서 河西는 “미친 척하며 종 노릇하면서도 몸을 보전하는 것은 道와 義를 보전하여 마침내 그 국가를 보전하고자하는 소이었다.”로 보아 河西는 죽는 날까지 道와 義를 보전하여 지치주의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역사적 교육장소인 訓蒙齋 중건

4개 목조건물, 역사탐방 코스 활용

순창군이 조선시대 호남의 대표적 道學者인 河西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훈몽재를 완공하고 11월 9일 현장에서 중건식을 가졌다.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4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추진한 훈몽재 복원 사업은 2003년 4월에 시작하여 6년만에 11,522㎡ 규모로 완공됐다.

이날 중건식에는 강인형 군수를 비롯 양승종 군의장과 군의원, 각 기관 단체장, 울산 김씨 문중,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형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훈몽재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약 460년 전인 1548년에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쌍치면 둔전리에 세운 강학당”이라며, 앞으로 주변의 樂德亭,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전봉준 장군 피체지 등 주변 유적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역사탐방 코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앞으로 훈몽재는 하서 선생 유물전시관으로 자연관과 양정관을 교육관으로, 삼연정을 야외 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선생이 송강 정철, 고암 양자징, 월계 조희문, 금강 기효간, 변성온, 이지방 등 50여명의 제자들을 배출한 후학양성의 도량으로서 비록 시골에 위치한 학사였지만, 1796년 정조 임금이 그 존속 여부를 물을 정도로 인정받은 교육 장소였다. 지난 2003년 올김

중중의 노력과 이들의 뜻을 받아들인 순창군의 노력으로 오늘날 새롭게 복원되었다.

河西 선생은 장성 맥동에서 태어났지만 처가 순창 팔덕이고, 외가가 玉川 趙氏여서 생애의 매우 중요한 시기를 순창에서 보내셨는데, 이번에 순창군이 훈몽재를 복원함으로써 長城과 쌍벽을 이루는 河西 先生 유적지로 부상되었다.

필암서원 추향제 거행

李東俊 초헌관 강론

조선시대 道學의 대가인 河西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秋享祭가 9월 29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향제에서는 柳漢相 성균관 고문, 李東俊 전 성균관 유학대학장, 林元澤 전남향교재단 이사장, 송하철 전 전북부지사, 이재교 영남유림대표, 임동의 전북향교재단 이사장, 金鎭雄 문전공 도유사를 비롯한 유림과 李清 장성군수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추향제는 홀기에 따라 봉진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헌관에 이동준, 아헌에 임원택, 종헌에 송하철, 진설에 서재업, 집례에 기영렬, 대축에 이재교, 봉향에 김양렬, 봉로에 정재룡, 봉작에 이현호, 진작에 조병철, 찬인에 이종창, 사회에 김상석 씨가 수고하였다.

초헌관을 맡은 李東俊 전 성균관대 유도대학장은 제를 마친 뒤 청절당에서 「河西 선생의 학문 세계」를 주제로 강론했다.

이 학장을 “正祖大王이 하서 선생에 대해 동방의 유일한 성리학자요 동양의 햇불로 추앙했

다.”고 말했다. 그는 河西 先生의 人道之義 정신과 中和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新齋 崔山斗 先生의 道學 精神 강연

2009 山仰會 하계 학술 강연

필암서원 山仰會 2009년 하계 학술 강연회가 7월 1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20여명의 이 고장 유림들이 참석한 강연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서로 읊을 하고 文廟向拜를 올린 다음 吳仁均 본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朴泰根 광주향교 전교의 축사 東江 柳漢相 성균관 고문의 격려사, 金鎮雄 도유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특히 남간사 도유사인 송준빈 본회 부회장 일행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新齋 崔山斗 선생의 道學 精神〉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최대우 전남대 교수는 실재하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아쉬워하면서, 新齋 선생을 김굉필의 도학을 정통으로 계승한 제자로 조광조, 한충, 김구, 김식, 김안국, 김정국 등 洛中君子會로 지칭되는 분들과 道義之教를 맺고 도학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한 대학자였다고 강연했다. 신재 선생의 학문은 朱子學을 이념으로 한 至治之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학술강연에 이어 河西 김인후 선생의 문묘배향을 운허한 〈正祖大王 批答〉文을 박래호 총무가 낭독하고 강연회를 마쳤다.

광주향교 朴泰根 전교와 성균관 유도회 전남

도 본부회장 甲斗千(본회부회장)이 화환을 보내 주었다.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과 敎育방법 學술 토론회

광주 북구문화원, 시가문화원 학술 토론회

지난 11월 6일 16시에 광주 북구청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河西 김인후의 시문학과 敎育방법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있었다.

동신대 김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시가문화권 학술토론회에서는 전주대 김성진 교수가 〈河西 김인후의 생애와 시문학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영남대 정낙찬 교수가 〈河西 김인후의 敎育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벌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인 이종일 원장과 광주보건대 노운서 교수가 참여하였다.

광주 북구청 문화원에서는 북구 주민과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가문화권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여 북구의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외국작가 2인, 河西의 〈소쇄원 48詠〉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 작품 발표

200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이라는 컨셉으로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작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河西 先生의 詩 〈소쇄원 48詠〉에서 영감을 얻은 외국인 작품 2점이 출품되었다.

한 외국작가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詩

가 있는 정원>이라는 독특한 이미지에 매료되어 이를 작품화했고, 다른 외국 작가는 <소쇄원 48詠>이 흐르는 물과 연못에 비치는 영상을 매우 인상 깊게 인식하여 작품화하였다.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은 KBS TV에 방영되어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1월 20일에 山仰會 임원회의

11월 20일 11시에 박래호 총무 사무실(광주시 예원)에서 오인균 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장수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총회 준비와 산양회보 14집 발간을 위한 임원회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에서 총회는 12월 23일(수)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河西 선생의 선비 정신을 되새기는 뜻에서 <禮記 儒行篇>의 孔子 말씀을 이준영 회원이 낭독하기로 했다.

또한 <훈몽재>를 복원하여 완공한 姜仁馨 군수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로 했다. 날짜가 급박하므로 2010년도 사업계획, 2009년도 결산 등 총회 준비와 산양회보 발간을 서두르기로 했다.

山仰會報 편집 임원회의

12월 9일 오후 3시 大東文化에서 2009년 총회 준비와 회보 편집을 위한 임원회의가 오인균 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김재수 부회장, 이준영 감사,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이충원 총무간

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9년 총회 준비와 임원 개선을 논의하고, 이준영 감사에게 감사를 받았다. 이어서 열린 편집회의에서는 회보 14집의 편집 내용을 논의하여 확정짓고, 오후 늦게까지 교정을 보았다.

裕堂 崔相玉 회장 紀積碑 제막

裕堂 崔相玉 남화토건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기적비 제막식이 11월 7일 광주시 서석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東江 柳漢相님을 비롯한 광주 전남의 유림 대표들과 각 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물들지 말고 깨끗한 선비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뜻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업을 이끌어 온 최 회장은 지역 사회의 문화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온 기업인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다사다난했던 朴來鎬 총무

● 8월 26일 필암서원 옛 터였던 장성읍 기산리에 주택을 신축하여 宋淵齋 선생의 현손 永文氏의 글씨로 岐陽精舍라 현판하고 문간에 申文秀氏의 글씨로 日昇門이라 현판했다.

● 9월 17일 父親 栢軒公 별세에 이어 11월 30일 夫人 沈氏가 별세했다.

● 12월 5일 도산서원 퇴계학회 李龍兌 원장과 선비교육원 金柄日 원장이 주관한 선비 교육 자료집 편집위원으로 참석하였다.

入會를 환영 합니다

광주시	서구	羅昌均
	남구	丁南鎬
	북구	李正熙
서울시	은평구	이찬희
안동시	풍산읍	金昌鉉
전남	화순	서재풍
	담양	朴奉達
	장성	鄭在龍
	장성	金辰煥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姓 名	金 額
부산 金鎮雄	200,000원
대전 金燿 中	100,000원
나주 林元澤	240,000원
광주 남구 申斗千	200,000원
광주 남구 張源碩	100,000원
광주 북구 金鍾桓	100,000원
장성읍 朴來鎬	100,000원

2009年 9.29(陰曆 8.11)

筆巖書院 秋享祭 獻誠金 內譯

순번	內 譯	金額(원)
1	金鎮雄(都有司)	100,000
2	山仰會	200,000
3	金宅洙(前都有司)	50,000
4	鳳巖書院	50,000
5	김문수(MS토피아소장)	100,000
6	金炳郁(文正親睦會長)	100,000
7	車庄坤(長城畜産組合長)	50,000
8	金相杓(本孫)	30,000
9	金盛洙(本孫)	30,000
10	安平君(長城教育長)	50,000
11	金兩洙(本孫)	100,000
12	김진태(本孫)	50,000
13	반요진(長城高等學校長)	50,000
14	金昌洙(蔚金壯山宗中)	50,000
15	朴光鎬(長城農協支部長)	100,000
16	林東翼(全北鄉校財團)	50,000
17	양중호(담양군 수북면)	30,000
18	柳嘆烈(祭官 執禮)	100,000
19	金達洙(蔚金大宗會長)	축화환
20	金光(蔚金長城宗親會長)	축화환
21	朴泰根(光州鄉校典校)	축화환
	合 計	1,290,000

알림

1. 본회 2009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23일(수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 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禮記 儒行篇 誦讀 (李準永 본회 감사)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농협 302-0137-2969-31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재수)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2-0137-2969-31)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 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감)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헌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 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정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세계」 강연